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 진취성의 조절효과

남재우¹, 최영근^{2*}

¹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²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경영학전공 교수

The Effect of Field Practice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Search: Moderating Effect of Enterprising

Jae-Woo Nam¹, Young-Keun Choi^{2*}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nK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교육이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심리적 변인인 진취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3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장실습의 실효성과 기관적합성은 진로탐색 역량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진취성은 조절변수로서 실습실효성과 기관적합성이 진로탐색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장실습은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검증되었으며, 진취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진로역량에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대학은 양질의 실습기관 발굴하여 올바른 현장실습 교육을 유지해야 하며, 진로 관련 심리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현장실습, 진로탐색, 진취성, 기업가정신, 조절효과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field practice on the career exploration of college students was analyzed and the effect of adjusting the psychological variable, enterprising, was tested. To this en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field practice. An analysis of 193 data showed that the effectiveness of field practice and the suitability of field practice companies were factors that increased the ability of college students to explore their career path. In addition, individual initiative was analyzed as a parameter, which strengthens the effectiveness of the practice and the suitability of the practical company on the ability of the career exploration. Universities should find quality practice companies and maintain the right field practice, and need to come up with pre-education programs that can improve career-related psychological capabilities.

Key Words : Field practice, Career search, Enterprising, Entrepreneurial spirit, Moderating effect

1. 서론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이하 현장실습)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업으로 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

협력 교육과정이다. 현장실습은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1학기·2학기), 계절제(하계·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1].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

*Corresponding Author : Young-Keun Choi(ykchoi@kku.ac.kr)

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적 기능이 우선으로 담보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장실습은 학생의 실무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교육을 포함한 실습 과정으로 운영된다[2]. 올바른 현장실습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6-89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현장실습 운영 시 필요한 운영절차, 표준협약서 등 각종 내용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현장실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현장실습지원센터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갖추고 교육부 규정에 기반을 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학생들이 전공 관련 직무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능동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보호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학협력교육은 현재 국가의 교육정책에 있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관련 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41호)」에서는 대학을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역할과 임무를 명시하고 있으며[3], 「고등교육법(법률 제15948호)」에는 교직원들의 임무 범위에 산학협력을 포함 시키고 있다[4]. 또한, 201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법률 제16439호)」에서는 교원채임용 심사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대 고등교육 정책 기조에서는 산학연협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현장실습은 실습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실무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여 진로탄력성, 진로통찰력, 진로정체성 등 진로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7]. 또한, 취업과 직장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8].

한편, 대학생의 진로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진로행동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었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취업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9],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며[10], 심리적 진로장벽과 진로관여행동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등 [11] 많은 연구에서 영향력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행동에 있어 현장실

습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진로행동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상관성을 인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현장실습이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그 효과를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현장실습과 진로탐색 관계에서 학생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변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많은 연구에서 영향력이 입증되었으므로 진로에 작용하는 개인의 또 다른 심리적 변인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역량 증진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단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2. 대학교 현장실습 운영현황

대학에서의 현장실습은 대학과 실습기관, 실습학생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대학은 현장실습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실습기관은 실무교육을 담당하며, 학생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데, 이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은 현장실습담당 교원을 통해 다수의 실습기관을 발굴하고 현장실습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다. 그 뒤 학생들에게 협약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또는 진로에 적합한 실습기관을 선택해 실습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실습 담당 교원은 현장실습 기관을 방문하여 실습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실습이 종료되면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평가표를, 학생들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실습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친 뒤 대학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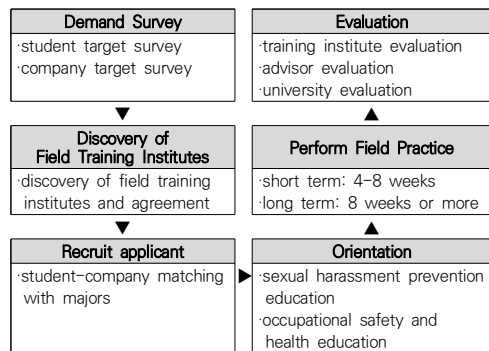


Fig. 1. Field training process

이 같은 현장실습은 전국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Table 1과 같이 최근 5년간 4년제 대학에서는 339,881명의 학생이 214,165개의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였다[12].

Table 1. University field practice in recent 5 years

Year	Students	Companies
2013	61,587	36,576
2014	65,738	41,099
2015	71,410	45,179
2016	71,735	46,218
2017	69,411	45,093
total	339,881	214,165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별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은 ICT관련 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등에 학생이 참여하여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문제해결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ICT관련 학과 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13].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사업'은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4개월간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 R&D관련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취업을 앞둔 공대생의 R&D 기술역량 확보 및 현장실무와 대학 교육의 연계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8년 기준 6개 광역권별로 대학이 구성한 1개 컨소시엄을 선발하여 총 240명의 학생이 인턴십을 진행하였다[14].

고용노동부의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2~3학년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조기 진로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1~3개월간 현장실습을 진행하며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의 참여가 가능하다[15]. 또한, 고용노동부는 'IPP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IPP: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사업으로 4년제 대학교 3~4학년 학생들이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10개월) 실무경험을 습득하고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단기·탐방형 현장실습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통해 대학생들의 현장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16].

3. 연구설계

3.1 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크게 2개의 연구문제와 하위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문제1(Q1)은 현장실습이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3개의 하위 가설(H1~H3)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현장실습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6-8]를 기반으로 설정된 가설로, 본 연구에서 이를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Q1: 현장실습은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H1: 현장실습의 실습실효성은 진로탐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현장실습의 운영적절성은 진로탐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현장실습의 기관적합성은 진로탐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문제2(Q2)는 현장실습과 진로탐색 관계 사이에서 진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진취성은 진로관련 학생의 심리적 특성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 변인들이 학생의 진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9-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발견된 심리적 변수 외 다른 변수를 발견하고자 하고, 또한 새로운 변수를 통해 심리적 변인이 진로탐색에 작용하는 것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H4~H6) 구성하였다.

Q2: 현장실습과 진로탐색 관계에서 진취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

- H4: 실습실효성과 진로탐색 사이에서 진취성은 정(+)의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 H5: 운영적절성과 진로탐색 사이에서 진취성은 정(+)의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H6: 기관적합성과 진로탐색 사이에서 진취성은 정(+)의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을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아래의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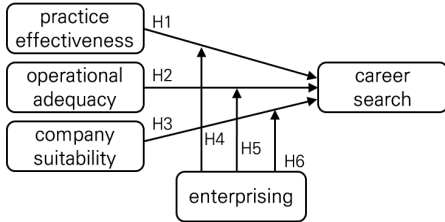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1 현장실습 효과

현장실습 효과에 대한 측정도구는 교육부(2017)의 현장실습 운영매뉴얼[2]과 고용노동부(2016)의 연구보고서[17]에 제시된 설문조사서를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실습실효성'은 산업체 경험과 진로계획에의 도움, 실무지식의 이해 등 현장실습의 실제 효과를 뜻하며, '운영적절성'은 현장실습의 구성 및 교수의 지도, 사전교육 등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기관적합성'은 실습기업의 환경, 실습관리, 실습계획 등 실습기업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며, '만족도'는 현장실습 내용과 운영, 실습기관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고 있다.

3.2.2 진취성과 진로탐색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변수인 '진취성'은 기업가정신 설문도구에서 차용하였다[18].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19],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0].

'진취성'은 기업가정신의 세부 측정항목으로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적이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변수로 판단되어 척도로 설정하였다.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division	variable	Definition
Field Practice effect	practice effectiveness	Practical Effectiveness of Field Practice
	operational adequacy	Operational Adequacy of On-Site Training
	company suitability	Suitability of training companies for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Overall Satisfaction with Field Practic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Enterprising	To be more enthusiastic and confident than others
Career related	Career search	Ability to actively explore career opportunities

'진로탐색'은 정지은(2017)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 역량 척도에서 차용한 변수로 성장기회의 탐색 및 경험과 진로의 연결, 직업정보수집 등 진로 관련 기회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역량을 의미한다[21]. 현장실습의 목적은 교육 기반의 직무체험이며, 이는 결국 진로탐색 활동이기 때문에 현장실습 효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인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과 진로탐색, 진취성의 상호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2019년 동계방학 동안 4주 이상 현장실습에 참여한 A종합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총 6일간 Google의 설문도구를 이용해 진행하였으며, 248명의 학생에게 설문조사 웹페이지의 URL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여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데이터는 총 197개로 79.4%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모든 측정 문항에 일관된 값을 선택한 4개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총 193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온라인 설문도구는 중복응답이 방지기능이 있으며, 모든 문항에 필수응답 하도록 설정하여 결측값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반드시 설문조사를 하도록 안내하여 응답률을 높일 수 있었다.

3.4 통계분석 방법

설문데이터는 SPSS Statistics 25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해 분석하였으며,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를 검증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였고, 현장실습과 진로

탐색, 진취성 간의 영향관계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조절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22],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연구의 일반적 기준인 0.5로 설정하였다.

4. 분석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대학생 193명의 진로탐색 인식과 이와 관련된 변인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n	72	37.3
	woman	121	62.7
	total	193	100
age	20's	193	100
grade	junior	69	35.8
	senior	124	64.2
	total	193	100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95	49.2
	natural science	53	27.5
	art, and physical education	45	23.3
total		193	100

응답자는 남성(37.3%)보다 여성(62.7%)이 높게 나타났다. 3학년 학생이 35.8%, 4학년 학생이 62.2%로 조사되었다. A대학의 현장실습은 4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만 참가할 수 있으므로 현장실습의 대상이 되는 학년은 3~4학년이다. 응답자의 전공별 특징은 인문사회분야 전공 학생(49.2%)이 가장 많았으며, 자연과학분야(27.5%), 예체능계열(23.3%)의 학생 순으로 집계되었다.

4.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가 현장실습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Feasibility test result of field practice measuring tool

iteam	commo-nal-ity	factor			
		1	2	3	4
suitability3	.485	.720	.187	.225	.265
suitability4	.556	.695	.324	.235	.182
suitability2	.672	.669	.211	.272	.281
suitability5	.731	.643	.236	.305	.268
suitability1	.610	.621	.342	.219	.227
effectiveness3	.550	.245	.681	.105	.218
effectiveness4	.571	.095	.677	.144	.190
effectiveness5	.480	.282	.657	.122	.213
effectiveness2	.524	.312	.617	.085	.254
effectiveness1	.582	.206	.548	.168	.330
satisfaction1	.602	.261	.162	.895	.217
satisfaction3	.644	.322	.061	.849	.217
satisfaction2	.675	.272	.356	.606	.200
adequacy5	.676	.285	.326	.235	.655
adequacy4	.634	.282	.429	.236	.642
adequacy2	.943	.309	.369	.272	.552
adequacy1	.608	.291	.376	.216	.533
adequacy3	.875	.386	.262	.171	.488
Eigen value		3.271	3.184	2.554	2.410
Common Variance(%)		18.173	17.690	14.187	13.390
Cumulative Variance(%)		18.173	35.864	50.051	63.441
<i>KMO</i> =.916, <i>Bartlett's</i> $\chi^2=2377.581(p<.001)$					

주축요인추출법과 베리맥스(varimax) 요인회전을 통해 분석을 진행한 결과 KMO측도가 0.916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성은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신뢰도 분석은 연구에 변수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table 5와 같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의 계수는 0.808~0.913의 범위로 나타나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Reliability verification result of measuring tool

	items	Cronbach's α	questions
Field Practice effect	effectiveness	.848	5
	adequacy	.882	5
	suitability	.898	5
	satisfaction	.905	3
Enterprising		.808	3
Career search		.913	5

4.3 변수 간의 상관성 분석

변수 간의 인과관계 검정을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Table 6에 서와같이 실습실효성은 운영적절성($r=.711$) 및 기관적합성($r=.616$), 진로탐색($r=.561$), 진취성($r=.523$)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운영적절성은 기관적합성($r=.715$), 진로탐색($r=.470$), 진취성($r=.377$)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기관적합성은 진로탐색($r=.508$), 진취성($r=.437$)과, 진로탐색은 진취성($r=.621$)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easured Variables

	1	2	3	4
1. effectiveness	1			
2. adequacy	.711**	1		
3. suitability	.616**	.715**	1	
4. career search	.561**	.470**	.508**	1
5. enterprising	.523**	.377**	.437**	.621**

** $p<.01$

상관계수(r)가 0.4~0.7 범위에 포함된 변수들은 상호 간의 상관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은 아니므로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4.4 현장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설검증에 앞서 현장실습의 세부 효과 요인과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7에서와같이 현장실습의 기관적합성과 운영적절성은 전반적인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F=50.907, p<.001$). 회귀모형은 분산팽창지수(VIF)가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기관적합성($\beta=.419, p<.001$)과 운영적절성($\beta=.318, p<.001$)이 높

아질수록 현장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현장실습 만족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Table 7.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Field Practice

	B	S.E.	β	t	p	VIF
(constant)	2.829	.119		23.765	.000	
effectiveness	-.014	.051	-.021	-.268	.789	2.122
adequacy	.181	.051	.318	3.579***	<.000	2.697
suitability	.241	.046	.419	5.280***	<.000	2.149
$F=50.907(p<.001), R^2=.447, \text{adj}R^2=.438, D-W=1.968$						

*** $p<.001$

4.5 현장실습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1은 현장실습이 진로탐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Table 8에서와같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F=41.657, p<.001$), 분산팽창지수(VIF)가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Analysis of the Effect of Field Practice on Career Search

	B	S.E.	β	t	p	VIF
(constant)	.625	.22		2.845	.005	
effectiveness	.525	.093	.462	5.622***	<.000	2.122
adequacy	-.050	.093	-.050	-.541	.589	2.697
suitability	.282	.084	.277	3.353**	.001	2.149
$F=41.657(p<.001), R^2=.398, \text{adj}R^2=.388, D-W=1.834$						

** $p<.01, ***p<.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습실효성($\beta=.462, p<.001$)과 기관적합성($\beta=.277, p<.01$)의 순서로 진로탐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적절성은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이를 해석하면, 현장실습의 실습실효성과 기관적합성이 높을수록 진로탐색 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운영적절성은 이와 관련이 없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의 실습실효성(H1)과 기관적합성(H3)은 진로탐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고, 운영적절성(H3)은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해당 가설은 기각되었다.

4.6 현장실습과 진로탐색의 영향 관계에서 진취성의 조절효과

연구문제2는 현장실습의 실습실효성, 운영적절성, 기관적합성이 대학생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9에서와같이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실습실효성, 운영적절성, 기관적합성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진취성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표준화 변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41.657, p<.001$), 2단계($F=55.718, p<.001$), 3단계($F=37.402,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39.8%, 2단계 54.2%, 3단계 58.6%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2.079로 나타나 2에 근사한 값을 보이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회계계수의 유의성은 1단계에서 실습실효성($\beta = .462, p<.001$)과 기관적합성($\beta = .277, p<.01$)이 진로탐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므로 운영성과 기관적합성이 높을수록 진로탐색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앞서 Table 8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한 내용이다.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인 진취성($\beta = .454, p<.001$)이 진로탐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실습실효성($\beta = .194, p<.001$) 및 기관적합성($\beta = .156, p<.001$)과 진로탐색 사이에서 진취성은 정(+)적으로 유의했으며, 운영적합성($\beta = -.294, p<.001$)과 진로탐색 사이에서는 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장실습의 실습실효성과 기관적합성이 진로탐색 역량에 작용하는 데 있어서 진취성이 그 효과를 증가시키며, 반대로 운영적합성의 작용에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습실효성(H4) 및 기관적합성(H5)과 진로탐색 사이에서 진취성의 정(+)적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 4~5은 채택되다. 한편, 진취성은 운영적절성(H6)과 진로탐색 사이에서 부(-)의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설6은 기각되었다.

Table 9.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of enterprising between field practice and career search

step	variable	B	S.E.	β	t	p	f	F^2 (adjR ²)
1	(constant)	2.836	.088		32.345	<.000	41.657***	.398 (.388)
	effectiveness	.720	.128	.462	5.622***	<.000		
	adequacy	-.078	.144	-.050	-541	.589		
	suitability	.432	.129	.277	3.353**	.001		
2	(constant)	2.836	.077		37.001	<.000	55.718***	.542 (.533)
	effectiveness	.392	.120	.252	3.272**	.001		
	adequacy	.011	.127	.007	.085	.932		
	suitability	.261	.115	.167	2.271*	.024		
	enterprising	.708	.092	.454	7.703***	.000		
3	(constant)	2.736	.086		31.634	<.000	37.402***	.586 (.570)
	effectiveness	.334	.119	.214	2.807**	.006		
	adequacy	-.076	.125	-.049	-608	.544		
	suitability	.325	.118	.209	2.757**	.006		
	enterprising	.729	.090	.468	8.112***	<.000		
	effectiveness*enterprising	.312	.110	.194	2.844***	<.000		
	adequacy*enterprising	-.469	.119	-.294	-3.949***	<.000		
	suitability*enterprising	.261	.124	.156	2.113***	<.000		

* $p<.05$, ** $p<.01$, *** $p<.001$

5. 논의 및 결론

5.1 교육과정으로서의 현장교육에 대한 인식 확립

본 연구에서 현장실습의 실효성과 기관적합성은 학생들의 진로탐색역량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현장실습의 세부 요인 중 실습운영의 적절성은 진로탐색역량과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습실효성과 기관적합성을 통해 현장실습이 진로탐색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는 현장실습은 진로개발 및 취업과 직장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된 선행연구들[6-8]과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현장실습의 효과성은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

한편, 현장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장실습기관의 적합성과 운영적절성이었다. 학생들은 실습기관에 만족하고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이 적절하다고 느낄수록 현장실습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실습의 만족요인은 현장실습이 진로탐색역량에 미치는 요인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실습에 대한 만족이 진로탐색역량을 높여준다고 할 수 없으며, 만족도와 진로탐색 역량은 별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지식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직무체험의 기회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본인이 실습했던 기업이 현장실습 교육장으로 적합하다고 인식할수록 진로탐색 역량은 높아진다. 그러나 현장실습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이루어지거나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 동기가 경제적 목적일 경우 오히려 진로성숙도나 직업가치관 인식 등에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23-24]. 따라서 연구에서 입증된 현장실습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실습할 수 있는 양질의 실습기관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현장실습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적 수단이 아닌 '현장교육'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대학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서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지역 산학협력을 통한 양질의 실습기업 발굴, 실습교육 전 사전교육 등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 2016-89호)」 5조 '현장실습 운영원칙'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장실습과 관련된 대학과 기업, 그리고 실습 주체인 학생은 본질적인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5.2 심리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의 심리적 요인은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체로 심리적 변인의 작용이 강할수록 진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1].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변수가 아닌 새로운 변수를 대입해 진로행동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진취성'을 새로운 심리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진취성은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열정적이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역량과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이는 개인마다 다르게 내재된 심리적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취성이 현장실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진취성은 현장실습의 실효성과 기관적합성이 진로탐색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 방향으로 증폭시키는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현장실습 운영적합성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력을 증가시켜주고 있었다. 따라서 진취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진로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기존 연구의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외에도 다양한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현장실습은 진로행동과 관계가 있으므로 진로를 고민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현장실습의 효과는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검증한 진취성이 그러하듯, 개인에게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 또는 자신감과 관련된 변인들은 현장실습의 효과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장실습 운영의 주체기관인 대학은 현장실습을 시행하기에 앞서 진로 관련 심리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취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정서교육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자신감 및 대인관계 훈련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현장실습의 사전교육으로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Regulations on college student field practice.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No. 2016-89. <http://www.law.go.kr>
- [2] Ministry of Education. (2017). *College Field Practice Manual: Guide for school practitioners on college field practice, Ministry of Education* Sejong : Ministry of Education.
- [3]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ndustrial Education Enhancement and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Promotion Act.* Act No. 15041. <http://www.law.go.kr>
- [4]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igher Education Act.* Act No. 15948. <http://www.law.go.kr>
- [5]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Private School Act.* Act No. 16439. <http://www.law.go.kr>
- [6] J. W. Yu & Y. H. Song. (2017). Comparing Latent Means on Job Competencies, Career Resilience, Career Insight, and Career Identity of Groups with and Without Field Exper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1), 181-200. DOI : 10.32341/JCER.2017.03.30.1.181
- [7] M. N. Lee & J. W. Yu. (2019). The Effect of Field Experience on Job Competency and Career Insight for Students in a College of Natural Scienc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1), 99-118. DOI : 10.32341/JCER.2019.03.32.1.99
- [8] H. J. Cho. (2010). The Effect of Participation and Type of Field Practice Program on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nd Ego-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7), 47-76.
- [9] J. Y. Moon & K. S. Jung. (2018). The Effect of Internship Satisfaction Rates and Social Support on Employment Strategies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 365-389. DOI : 10.21509/KJYS.2018.01.25.1.365
- [10] K. O. Son. (2011).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Perceived by Juni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2(1), 1-15.
- [11] H. B. Park & E. R. Son. (2019).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Career Involvement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8), 157-182. DOI : 10.21509/KJYS.2019.08.26.8.157
- [1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Field Practice operation statu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
- [13]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ICT Credit Link Project Internship.*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http://internet.hanium.or.kr>
- [14]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Major Activities.*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http://kiat.or.kr>
- [15]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ork experience. *Small Business Visit Program.*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s://www.work.go.kr/experi>
- [1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8). *Employment and Labor White Paper.* Sejong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1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6). *Quality work experience expansion plan.* Sejong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18] J. I. Kim & H. Y. Ga. (2019). The Effect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College Student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Moderating Effect of Sex.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1), 430-444.
- [19] M. J. Baek, M. S. Park & K. A. Kwon.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Up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the Entrepreneurial Gifted and General student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7(3), 431-449.
- [20] T. E. Ahn & J. H. Park. (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Career Path of University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2), 177-192.
- [21] J. E. Jung & C. Y. Jung. (2017).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Competencies Scale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9(3), 91-111.
- [22]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23] M. N. Lee & J. W. Yu. (2019). The Effect of Field Experience on Job Competency and Career Insight for Students in a College of Natural Scienc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1), 99-118.
DOI : 10.32341/JCER.2019.03.32.1.99
- [24] H. J. Cho. (2010). The Effect of Participation and Type of Field Practice Program on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and Ego-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7), 47-76.

남재우(Jae-Woo Nam)

[정회원]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박사)
- 2018년 8월 ~ 2019년 7월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현장실습센터장
- 201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현장실습교육, 데이터과학
- E-Mail : lisnam@kku.ac.kr

최영근(Young-Keun Choi)

[정회원]



- 2004년 5월 : TEXAS A&M University, Ph.D.
- 200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경영학 전공 교수
- 관심분야 : 취창업, 운영관리, 계량경영
- E-Mail : ykchoi@kku.ac.kr